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나전칠기, 일본 관람객 만난다... <나전장의 도안실> 순회

- 서울공예박물관과 공동으로 《나전장의 도안실》전시 6월 4일 개막
- 근현대 대표 나전장 6인의 희귀 도안과 작품, 동시대 나전칠공예품 총110점 전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은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공동으로 6.4.(목) 특별기획전 《나전장의 도안실》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을 개편해 일본 현지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2025년 미주(LA, 캐나다)에 이어 올해에는 8월 8일(토)까지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8월 20일(목)부터 10월 24일(토)까지 주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나전장의 도안실》은 나전칠공예의 설계도인 ‘나전 도안’에 주목하여 작품과 함께 비교 감상해 볼 수 있는 전시다.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나전칠공예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키며 대중화에 앞장선 근현대 나전장 6인(수곡 전성규를 비롯한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민종태, 김태희 등)의 희귀 도안과 작품을 선보였다.

- 나전칠공예는 전복이나 조개껍데기를 얇게 갈아 자르거나 오려 붙여 표면을 장식하고 그 위에 옷칠을 반복해 완성하는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한국의 대표 전통 공예이다. 이런 나전칠공예는 근대에 이르러 대량 생산과 표준화된 공정을 위해 도안을 도입하였다. 도안은 조개껍데기를 오려 붙여 문양을 만드는 ‘나전칠공예’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순한 밑그림을 넘어 작품의 조형미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장인들이 평생에 걸쳐 축적해 온 나전 기법과 미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번 일본 순회 전시에서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현대 나전칠공예 교류 관계를 조명한다. 1920년대 전성규, 김봉룡, 심부길, 송주안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나전사’에서 활동하며 금속 세공 도구인 ‘실톱’을 나전 제작에 도입하여 한국 나전의 회화적 표현을 발전시킨 과정과 1970~80년대 민중태와 김태희의 ‘찰통棗’과 ‘향합香合’ 등이 일본으로 다수 수출되면서 일본 다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동시대 나전칠공예 장인·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한국의 나전칠공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성수, 송방웅, 이형만, 손대현, 최상훈, 김설 등은 근현대 대표 나전장 6인의 예술 세계를 직접 사사한 정통 제자이자 오늘날 국가, 시·도 무형유산 나전장으로 전통의 계승을 바탕으로 동시대적 감각을 구현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 전시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특별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현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 개막 당일인 6월 4일(목) 14시(현지시간), 주일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나전칠공예의 전통과 장인’을 주제로 한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의 특별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최상훈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가 직접 전통 나전 기법을 눈앞에서 재현하는 생생한 시연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한국 공예의 정수를 이론과 실증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이번 특별 행사는 도쿄 현지 문화예술계 주요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찬사와 높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박영혜 주일한국문화원장은 “한국 근현대 나전칠기의 위대한 계보와 거장들의 명작을 도쿄 현지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특히 개막 전부터 현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을 통해 우리 한국의 전통 공예가 가진 세계적인 미학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나전장의 도안실》을 공예에 대한 안목과 역사가 깊은 일본 관객들

에게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칠공예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온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번 전시가 장인들의 땀방울이 맺힌 도안과 찬란한 나전칠기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K공예의 진정한 매력을 일본 현지에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나전장의 도안실’ 행사 개요 1부.
 2. 전시 전경 및 강연, 시연행사 사진 1부.
 3. 작가 소개 및 대표 출품작 이미지 1부.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장	조은경 (+81-3-3357-5970)



□ 행사개요

- 행사명 : 나전장의 도안실
- 일시 : ‘26.6.4.(목) - 8.8.(토)
 - 개막식 : 6.4.(목) 16:00~
 - 서울공예박물관 김수정 관장의 나전칠공예 강연회 : 6.4.(목) 14:00~15:00
 -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최상훈 보유자의 나전칠공예 시연 : 6.4.(목) 15:15~15:45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MI
- 주최 : 주일한국문화원, 서울공예박물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 주요내용 : 근현대 나전칠공예 거장 6인의 작품 및 도안 전시, 현대 나전장 6인작품 전시
- 참여 작가 :
 - 한국 근현대의 나전장 : 전성규,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민종태, 김태희
 - 한국 근현대 나전장의 제자들 : 김성수, 송방웅, 이형만, 선대현, 최상훈, 김설
- 순회 안내 :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2026.8.20.(목)-10.24.(토)
- 전시 홍보물 및 주요 작품



포스터 이미지



<나전칠 산수문 액자>도안, 김봉룡 작



나전칠 산수문 액자, 김봉룡 작




근현대 대표 나전장 6인

<p>전성규 Jeon Seong-gyu</p>	<p>전성규(1880 전후~1940)는 조선과 근대 나전칠공예를 잇는 장인이자 계몽운동가다. 공업용 싯톱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여러 장의 나전을 정교하게 오릴 수 있도록 해(주름질 기법) 나전칠기 대량생산의 길을 열며 우리 나전칠공예를 세계에 알렸다. 1923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할 만큼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진 그는 도안 제작에 능했으며 특히 산수화를 즐겨 그리며 이를 도안화하여 작업했다.</p>	 <p>나전칠 산수문 탁자 螺鈿漆山水文卓子</p>
<p>김봉룡 Kim Bong-ryong</p>	<p>김봉룡(1902~1994)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장식미술 및 근대공업 박람회>에 스승 전성규와 함께 작품을 출품해 은상을 수상해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인 나전장이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거의 매년 추천작가로 출품하였다. 유려한 곡선을 사용해 자신만의 넝쿨무늬를 발전시켰으며 1966년 대한민국 첫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쌍룡무궁화당초문 함 螺鈿漆雙龍無窮花唐草文函</p>
<p>송주안 Song Joo-an</p>	<p>송주안(1901~1981)은 전성규의 제자로 '끓음질' 기법을 활용하여 회화적인 산수문과 다양한 화조문을 자유롭게 표현한 나전장이다. 젊은 시절 전성규와 함께 일본의 조선나전사에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생의 대부분을 통영에서 나전칠기를 제작하며 보냈다. 1979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끓음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난초문 반 螺鈿漆蘭文盤</p>

<p>심부길 Shim Bu-gil</p>	<p>심부길(1905~1996) 역시 전성규의 제자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기물에 빼곡하게 장식하는 꿩음질의 대가이다. 생전에는 다양한 나전칠공방을 돌며 출장일을 다녔으며 1975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꿩음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장생문 함 螺鈿漆長生文函</p>
<p>민종태 Min Jong-tae</p>	<p>민종태(1915~1998)는 전성규의 문하생이었으며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와 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나전장이다. 1970-80년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전공방을 운영하며 크고 웅장한 작업을 하였다. 1996년 서울시 무형유산 나전칠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십장생도 문갑 螺鈿漆十長生圖文匣</p>
<p>김태희 Kim Tae-hee</p>	<p>김태희(1916~1994)는 1957년-1960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4회 연속 특선을 한 나전장이다.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인 문양을 창출하고 다양한 색의 옷칠을 한 나전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2년 국가무형유산 나전칠기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어문 반 螺鈿漆漁文盤</p>

현대나전공예

<p>김성수 Kim Seong-soo</p>	<p>현대 칠공예가 김성수(金聖洙, 1935~2025)는 1951년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1기생으로 입문해 김봉룡으로부터 전통 나전칠공예를 익혔고, 전통 나전칠공예의 옷칠을 현대미술에 접목하여 한국의 현대 '옷칠회화'를 개척한 작가이다.</p>	 <p>폭죽 爆竹</p>
----------------------------------	--	--

<p>송방웅 Song Bang-ung</p>	<p>前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 (宋芳雄, 1940~2020)은 송주안의 외아들이자 수제자로, 부친의 뒤를 이어 1990년에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7년 인간문화재공예전 장려상, 1985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을 통해 장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생애 마지막까지 나전 공예의 창작과 전승에 헌신하며 한국 전통 공예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p>	 <p>나전칠 회포문 아기삼층장 螺鈿漆回苞文三層櫥</p>
<p>이형만 Lee Hyeong-man</p>	<p>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李亨萬, 1946~)은 김봉룡의 제자로 1996년 스승의 뒤를 이어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스승인 김봉룡으로부터 오랫동안 도제식으로 나전칠공예를 배웠으며 김봉룡과 비교하면 선이 더 굵고 대담한 특징을 보인다. 현재 그는 원주에서 창작 활동과 함께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p>	 <p>나전칠 석류문 과반 螺鈿漆柘榴文果盤</p>
<p>최상훈 Choi Sang-hoon</p> <p>현지 시연 장인</p>	<p>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 최상훈(崔相勳, 1954~)은 민중태의 수제자로 심부길에게서도 꿇음질을 배워 줄음질과 꿇임질 모두에 능한 인물이다. 그는 전통을 지키는 장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며 나전칠공예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장인 정신과 탁월한 기량을 평가받아 국가무형유산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모란당초문 합 螺鈿漆牡丹唐草文合</p>

<p>손대현 Sohn Dae-Hyeon</p>	<p>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칠장(옷칠) 보유자 손대현 (孫大鉉, 1950~)은 민중태의 공방에서 나전칠공예의 기술을 익힌 뒤, 전통 옷칠 공예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전통 옷칠 기법과 현대적 재료와 감각을 실험하며 옷칠의 쓰임과 표현 영역을 넓혀왔으며, 1991년 대한민국 나전칠기 명장으로 인정된 데 이어 1996년에는 민중태의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칠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p>	 <p>나전칠 십장생문 보석함 螺鈿漆十長生文寶石函</p>
<p>김설 Kim Seol</p>	<p>현대 칠공예가 김설 (金雪, 1955~)은 통영 출신의 칠공예 작가로, 전통 건칠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다. 한국 옷칠회화의 개척자인 김성수에게 사사하였으며, 국내외 작가 교류 및 옷칠 분야 후진 교육에 힘써왔다. 현재도 한국 칠예 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주요 인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p>	 <p>붉은기(器) 08 朱器 08</p>